

거듭나는 각오로

金 乾 洽

〈대한 석유협회 상무〉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과거의 연장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정보통신 및 수송 기술의 발달로 국경 없는 경제가 되어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경쟁은 상품 수출 뿐만 아니라 노동, 금융, 정부서비스, 지식, 문화의식과 관행등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정유산업도 시장경제원리가 수용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유사들은 개방과 자율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도 이같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자명하다. 즉 변화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지배하는 변화된 세상에서는 경쟁하려는 혁신적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협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석유협회는 지난 1980년 제2차 석유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립되었다. 5공화국 출범 직후 정부가 그동안 난립해 있던 각종 단체들을 통폐합하던 당시의 삼엄한 상황하에서 유독 정유업계의 이익단체인 석유협회를 새로 발족시켰던 것은 석유문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협회에 거는 정부와 업계의 기대가 지대했음을 말해준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석유협회의 주요임무는 ① 석유산업 시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석유업계 의견의 조정·집약 및 정책 제시, ② 국내외 석유정보의 수집 분석 및 보급, ③ 대국민홍보활동 및 출판물 간행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환경은 변했다.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부지향적인 업무영역이 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축소된 것이 그 한 예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정유사들은 이미 이 부분의 인력을 대폭 축소하거나 또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하에서는 조직의 이념과 기능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업모델로 제창되는 「민활기업」(Agile company)라는 경영개념이 있다. 민활기업이란 급격한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을 말한다.

미국의 API,
영국의 IP와 같이
충분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사회와
업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첩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계를 대형 탁상시계에서 스톱워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기업이나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왔던 활동의 시간만 단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정된 경쟁공간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정보와 지식을 구사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지적(知的) 기동성」 즉 민첩성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과 조직에 관한 지식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신속하게 흡수하여 변화하고, 조직을 재조직화하는 경쟁우위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개발·확충이 요구된다. 첫째로 조사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해외정보 수집능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민관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문영역을 특화하면서 네트워크로 연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정부지향적 협회와 출연연구소를 대내외·정부·민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보를 생성 가공 교류 획득하는 주체로 명확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API, 영국의 IP와 같이 충분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사회와 업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대국민홍보가 대폭 강화되어야 하겠다. 현재 석유업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국민홍보의 강화는 앞으로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된다. 과거 정부 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홍보 설득할 책임이 정부에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후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계 또는 협회 차원에서 업계의 현황 및 유가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석유연맹이 연맹 내부에 별도로 홍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셋째는 업무와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협회 운영은 한마디로 사람 경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회가 얼마나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그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하는가가 앞으로 협회 운영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종합적인 사고, 국제적인 감각, 전략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관행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번 움켜쥔 권익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부서이기주의의 타파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구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누더기 깃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대응하거나 부분적으로 개선해서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경쟁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대정부업무와 정부의 위임업무에 더 많은 기능을 할애했던 협회역할은 세계화·자유화시대를 맞아 이제 새 기능을 창출할 때가 되었다. 바로 회원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기능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물론, 창조·협력·도약의 협회상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할 시점이다.

협회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다시 한번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심기일전의 자세로 회원사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에너지정책의 선도자로서 정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회원사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

이제 시대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관행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